## 2021학년도 제4차 산학협력단 운영위원회 회의

	회 의	록			
회 의 명	산학협력단 운영위원회				
일 시	2022.01.28 (금) 오전 10시	장 소	비대면 zoom 회의		
참석자명단	배진희, 이정옥, 임신일, 양정은, 조은미, 한다은(간사)				
	참관인: 최미숙(후임 산학협력단장)				
회 의 안 건	2022년도 산학협력단 예산(안)				

회 의 내 용





- □ 2022년도 산학협력단 예산(안)
- 위원장이 산학협력단 예산(안)의 자료를 설명하다.
- 2022년 수입에 대해서는 고희성 교수 연구(한국연구재단)가 2022년까지 지속되는 것 외에 2022년도에 새롭게 수주할 것으로 예측되는 교외연구가 없어서 연구비 수입을 0원으로 책정하고, 산학협력수입 수입(무인복사기 운영 수입 2,000,000원)과 이자수입 (400,000원), 기초현금(전기이월: 72,798,000원)의 세부 내역과 금액에 대해 설명하다.
- 위원장이 교외 연구비 수주 실적에 따라 즉각적인 추가경정 예산 편성이 필요함을 설명하다.
- 2022년 지출과 관련해 산학협력비(무인복사비 재료비 1,000,000원), 지원금사업비 (고희성교수 연구비 지출 20,000,000원), 일반관리비(연구비 수주 인센티브, 제경비 등 3,400,000원)의 세부내역과 금액에 대해 설명하다.
- 위원장이 2022년도 예산(안)심의 여부를 묻자, 이에 이정옥 위원의 동의와 조은미 위원의 재청으로 원안대로 심의하기로 의결하다.
  - □ 산단운영계좌(카페) 금액 적립
- 위원장이 2020년까지 산학협력단이 운영한 카페 수익금 31,114,878원이 계속해서 이월금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음을 설명하고, 차기 수익사업 운영시 자본금 사용 목적으로 별도 관리, 이자수익 확대, 실제 운영 금액에 비해 예·결산서가 과다 책정되는 문제점 해소 등을 위해 적립금으로 전환하는 것을 제안하다.
- 임신일 위원이 일반 예금을 적금형태로 전환한다고 해서 늘어나는 이자수입이 미미하고, 신임 산학협력단장의 운영 계획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안하다

- 최미숙 참관인이 2022년 산학협력단 운영 방향에 대한 운영계획이 수립 전이고 또한 차후 예측 불가능한 변수를 고려했을 때 금번 회의에서 적립금 전환을 결정하는 것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제시하다.
- 이정옥 위원이 적립금 전환시 이후 사용 절차가 복잡하지 않다면 예산관리의 효율성을 위해 적립금으로 전환하는데 찬성한다는 의견을 제시하다.
- 양정은 위원은 예산 관리의 용이성이 장점이라면 적립금 재사용 절차를 거쳐야 하는 단점이 있어서 다수의 의견에 따르겠다는 의견을 제시하다.
- 위원장이 신임 단장의 사업 계획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므로, 2022년도 운영위원회에서 재검토하기로 한다.
  - 위원장이 회의의 폐회선언에 성안을 요청하니 조은미 위원이 동의하고 임신일 위원이 재청하여 폐회를 선언하다.

참석현황	참석대상자	7명	직위	성명	서명
	참석자	6명	위원장	배진희	HUZIE
	불참자	1명	위 원	장효순	
비고			위 원	이정옥	0/2005
			위 원	임신일	2 Hon
			위 원	양정은	Otorber.
			위 원	조은미	7280
			간 사	한다은	ober